

시온 주보

제2586호

2025년 11월 23일(다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성스러운 얼굴

조르주 루오

(Georges Rouault, 1871-1958)

1933, 91x65cm

캔버스에 배접한 종이에 유채와 과슈
퐁피두센터, 프랑스 파리



입당송 |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 2사무 5,1-3

화답송 | 시편 122(121),1-2.4-5(◎ 1 참조)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2독서 | 콜로 1,12-20

복음환호송 | 마르 11,9.1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 루카 23,35ㄴ-43

영성체송 |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낙원의 약속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명동대성당 주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주간을 지내며 전례력으로 다해를 마무리하고, 대림 제1주일부터 가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시절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살피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죄우에 매달린 두 죄수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수에게 다른 죄수는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루카 23,40)라고 말하며 하느님을 떠올리는 ‘회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23,41)고 말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23,42)라고 겸손하게 청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회개-자기·성찰-신앙고백-겸손한 청원’을 보이는 그 죄수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23,43)고 약속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도 낙원을 약속받은 그 죄수처럼 ‘회개-자기 성찰-신앙고백-겸손한 청원’의 차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감사할 세 사람을, 그리고 감사할 세 가지 일들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그 일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직접 전하기가 어려우면 마음으로 기억하며 기도 안에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 상처 받은 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떠올려 봅시다. 그 일에, 그 사람에 매몰되어 더 깊은 상처의 늪에 빠져 헤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의 도움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의 용서라는 커다란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만물을 화해시켜 주신 분’(콜로 1,18-20 참조)이신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가해’라는 새로운 한 해의 도화지를 아름답게 채워가려는 마음을 봉헌하도록 합시다.



✍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성화 해설

조르주 루오는 전통적인 성화의 형식이나 현대미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영감에서 우리 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참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지복직관입니다.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십자가 위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으뜸 목자이며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나는 거룩한 얼굴은 그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듯한 착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후안 디에고의 노래



이인평 아우구스티노 시인

은총은 언제나 기쁨이 베풀어졌습니다. 1531년 역사상 최초로 후안 디에고에게 발현하셨던 과달루페 성모 성지의 대성전(바실리카)에서 마침내 제 번역본이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시를 쓰면서 그토록 출간되길 염원하였고, 출간된 번역본을 과달루페 성지 대성당에서 주님과 성모님께 잘 봉헌되게 해달라고 청원했던 저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달루페 성모 대축일(멕시코에선 공휴일)인 12월 12일 낮 12시, 사제와 주교단 80여 명이 집전한 장엄 미사 중에 멕시코 가톨릭의 수장인 노르베르토 리베라 카레라 추기경님의 손으로 드디어 제 시집이 성모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방송사들이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추기경님이 중앙 제대 앞에서 제 시집을 받아들고 저와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게 해 주셨는데, 이렇게 장엄 미사 중에 책을 봉헌하고 사진을 찍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큰 체육관 같은 대성당 1, 2층에선 만여 명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성당 밖 광장과 대로에는 십만 명도 넘는 신자들과 순례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인터뷰 때 통역을 해 주신 소 요셉 신부님이 저에게 농담이 아니라며 “당신은 이제 한국보다 멕시코에서 더 유명해 졌다!”며 환히 웃었던 표정이 떠오릅니다. 과달루페외방 선교회 사제들도 당신들이 이루신 일처럼 놀라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나에게 시란 무엇인가? 은총과 사랑이 없었다면 쓸 수 없는 시집이었음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창가에서 노래 부를 리 없듯, 제 시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성모님을 찬미하는 선율임을 다시금 확신했고, 무엇보다 제가 시를 써 온 모든 과정을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자

마자 저를 다독이는 은총의 손길을 느끼며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며칠 동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여한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쓸 시간을 주시고, 울 시간을 주셨으며, 기뻐할 시간을 주신 은총을 더욱 깊이 깨닫는 나날이었습니다. 시집을 봉헌하기 이틀 전, TV 방송국에서 50여 분간 인터뷰 중에 이사벨 앵커의 요청에 따라 낭독했던 시로 그날의 회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 꽃이 피어날 때 시를 써요/ 제 마음이 어머니를 향해/ 꽃처럼 피어나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안에서 꽃향기가 나요/ 제 시의 향기는 어머니께로 가요// 기쁜 마음에서 기쁜 시가 나와요/ 꽃 같은 마음에서 시가 피어나요/ 시는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 어머니와 나의 사랑처럼 기쁨을 머금어요// 어머니, 시는 언제나 사랑을 찾아가요/ 꽃이 피어날 때처럼 시를 쓰면/ 내 마음이 시로 피어나서 어머니께로 가요.(<꽃과 시> 전문)

한컷 묵상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루카 23, 43)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하느님의 씨앗'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T) 소장

아지트에서 만난 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딸을 폭행했고, 결국 9살에 아버지와 살기 힘들어 할아버지 집으로 갔지만, 할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13살이라는 나이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 아이에게 남자라는 존재는 자신의 몸을 탐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지트에 왔을 때 이 친구는 27세 남성과 동거 중이었죠. 처음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자신이 평생 겪었던 남자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해주는 어른들을 만나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2~3달에 한 번씩 오던 중 어느 날 새벽 늦게 전화를 걸어와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밤을 새워 정성을 다해 상담을 했고, 다음 날 아지트에 온 이 친구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동거 중인 남성의 집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면,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이 친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집을 깨끗이 청소하며 살고 있었고 키우는 강아지도 건강하고 청결하게 돌보며 매일 1~2회씩 산책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유흥업소에서 일

하던 언니들과 마담이 다시 연락해 좋은 조건으로 유혹했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지트에서 만난 어른들 덕분에 돈은 부족해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 좋아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립 준비를 성실히 하고 있죠.

연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험한 사회에서 악한 어른들 틈에서만 살아 희망이 없었는데, 아지트에서 어른들을 만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이 친구보다 덜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달콤함에 쉽게 넘어가 비행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는 가능했을까?’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세상에는 하느님의 소중한 씨앗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영이 강한 사람들,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고,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갈망하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욱 빛나는 영혼들이죠. 저는 아지트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느님을 알기 위한 토대가 잘 다져져야겠죠. 그래야 주님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닮은 영혼으로 거듭날 테니까요.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2티모 2,22)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와 가난한 교회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10월 9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서는 즉위 후 첫 권고인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문헌을 반포하셨습니다. 문헌의 라틴어 제목이 ‘딜렉시 테’(Dilexi te)인데, 이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셨던 마지막 회칙 제목인 ‘딜렉시트 노스’(Dilexit no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와 매우 유사합니다. 제목뿐 아니라, 내용과 강조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문헌은 전임 교황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현 교황님께서 이어받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헌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과 하느님의 선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적 가난의 의미,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의 임무, 교회의 진정한 부유함 등을 언급합니다. 요약하자면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의 역할입니다. 총 4개의 장 121항으로 구성된 본 문헌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총 망라합니다. 특히 문헌 제3장의 제목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이고, 35항부터 81항까지 비교적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소개하고, 많은 성인성녀의 실천과 사랑의 역사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이 문헌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가난한 교회’는 언급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는 가난

하지 않은지, 교회가 가난하지 않아야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 동료 사제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교회가 더 가난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근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 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느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모두 일리 있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5,3)이 행복하다고, 루카 복음서는 더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6,20)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마태오는 ‘가난한 사람’ 표현에 ‘마음’(=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영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존하는 겸손하고 비천한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루카는 ‘가난한 사람’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실제 물질적이고 사회적 가난을 겪는 사람들을 주된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아마도 루카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가깝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가난한 이를 위하는’ 교회의 사명과 ‘가난함’이라는 교회의 본질이 서로 잘 어울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계의 주인〉
2025년작, 윤가은 감독

희망영화관

: 세계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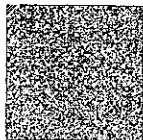
희년을 맞아 서울주보는 희망을 주제로 다양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희망 영화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의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희망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서사 안에 이를 잘 담아낸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영화와 함께 희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김상웅 도미니코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삶에서 때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미래로 선명하게 드러나 과거의 나를 딛고 조금씩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나 홀로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내가 미처 모르는 관계의 선량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게 합니다. 그날 저는 삼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숲에 있었습니다. 최근 읽었던 루카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 부분이 가슴 깊이 전달되어 그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총은 영혼이 준비할 틈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틀림없다는 듯 저는 그 숲 한가운데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채로 가만히 멈추어서서 지금 내 마음의 준비 외곽에서 몹시도 부끄럽게 밀려오는 화해의 손짓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방금 내려놓은 것은 나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나 자신 자체였던 까닭이기에 죄스런 이 존재 전체의 어떤 원초적인 부끄러움이 사실상, 하느님 구원의 빛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간절함을 품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저는 숲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루카 18,13) 인간의 죄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통회될 때 은총은 풍성함으로도 모자라 넘쳐흐르듯 영혼을 감격하게 합니다. 이 감격의 결정체는 바로 용서이며 화해입니다.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루카복

음 23장의 내용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들이 임금, 혹은 왕으로 부르기에는 비참한 그 모습으로 십자나무 아래 달려 계신 그분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모두들 그분을 빈정거리고 조롱하며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그분의 왕홀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왕으로 오심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 세계한 복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해의 전례력을 마감하는 오늘, 그분께서 왕으로 오시는 방식은 그 직전에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의 불가피한 원형의 전례를 말해 줍니다. 곧 고통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일치라는 인류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어울리듯 오늘 소개할 영화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하느님께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이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연대’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매우 담담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안에서 여러 친구들에게 성격 좋은 인싸로 통하며 대개 그 포레가 그러하듯이 연애가 가장 큰 관심사인 열여덟 ‘이주인’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한 존재의 화해 과정이 어떻게 공동체의 연대와 돌봄으로 가능한지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연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오랜 전통이고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인

사랑받는 자는 용감하다: 장영희 마리아



서희정 마리아 | 작가

척! 찌렁! 척! 찌렁! 수평선처럼 이어진 복도 끝에서 당찬 목발 소리가 울려 퍼진다. 장영희 마리아. 그녀는 지금 병원 전체가 울리도록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걸음이 이리도 웅장한 것은 소아마비로 힘을 잃은 두 다리를 대신한 목발과 다리 보조기 때문만은 아니다. 걸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듯이 그녀의 목발에는 용감함이 담겨있다. 진료실에 도착한 영희는 얼마 전, 검사한 결과를 듣기 위해 의사와 마주했다. 이미 2001년에 유방암, 2004년에 척추암을 견뎠다.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차분히 의사를 바라볼 수 있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영희를 비웃기라도 하듯, 의사는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며 간암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기가 막혔다. 더 나빠질 일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니!



어린 시절, 영희는 골목 모퉁이 쪽에 살았다. 어느 날 인가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골목을 지나가던 깨엿 장수가 영희와 영희 옆의 목발을 흘깃 보고는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그러고는 잠깐의 미소와 함께 말했다. "괜찮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깨엿의 달콤함과 단단함 만큼 영희의 마음을 달게 했고 단단하게 했다.

진료실을 나와 잠시 목발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멍하니 목발을 바라봤다. 1살도 되기 전,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5살이 되도록 누워만 지내야 했던 영희를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업어서 등학교를 시켰

다. 비가 오면 한 손으로 우산을 받쳐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영희의 무게를 감당했다. 겨울이면 학교까지의 길에 연탄재를 뿌리고 영희의 다리 혈액 순환을 위해 직접 숨을 넣어 만든 바지를 아랫목에 데워 입혔다. 귀가 떨어질 듯 아린 겨울날에도 '눈물 같은 땀'을 흠뻑 적시며 딸을 업었다. 어머니는 딸이 혹여 실수할까 봐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와 화장실을 데리고 다녔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오랜 희생이 영희를 빛나게 했고 영글게 했다. 암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떠올리게 해서인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도 연거푸 떠올랐다.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장왕록 박사. 한국 영문학의 역사였던 아버지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장애가 있다는 이

유로 받아주지 않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영희를 위해 사정했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영희의 재능을 믿었고 이해했다. 영희를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껏 영문학자, 교수, 번역가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깨엿 장수, 어머니, 아버지, 오빠, 언니, 동생, 수많은 제자, 친구, 이 모두를 보내주신 하느님... 그렇다!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받는 자는 용감하다." 영희는 목발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척! 찌렁! 척! 찌렁! 온 세상이 울리도록.

덧) 장영희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암 투병 중에도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오늘(11월 23일)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오늘부터 '성서 주간(11월 23일~29일)'이 시작됩니다

성서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월 30일(주일)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 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가해'를 따르게 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11월 25일 최종철 마르코 신부(55세)

위령성월기도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 기도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청 알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12월 4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 (코스트홀) / 집전: 양경모 신부(멕시코 선교 후 귀국)
문의: 02)727-2407, 2409

천주교서울대교구 건설업체 정규등록 신청 안내

정규등록 분야: 건축, 리모델링
등록신청 기간: 11월 24일~12월 12일까지
자격 및 서류제출, 심사, 등록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https://aos.catholic.or.kr>) 홈페이지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또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 건설업체' 참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영성심리카카데미
교육명: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욕기(허영엽 신부), 붓길 생명을 깨우다-비단 그림 그리기(김현정 작가)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 / (월~금) 10시~17시
문의(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겨울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11월 26일(수)까지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중정로역)
문의: 02)393-2213(<http://www.casm.co.kr>)

겨울학기	실기전문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별	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2026년 1월 12일~23일(11박12일) / 지도: 김성민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에
레사(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2027 서울 WYD 청년 리더십 연수

때, 곳: 12월 20일(토) 14시~19시30분,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참여하기 참조
문의: 02)2230-2023 / 2027 서울 WYD 조직위

제58회 가톨릭 에코포럼

대상: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신자, 신학생, 수도자, 성직자 / 주제: 기후와 사람을 돌볼 생태경제
때, 곳: 11월 26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사: 김병권 소장(녹색전환연구소)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eco.catholic.or.kr>) 및 전화 접수(02-727-2278, 2283)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12월 모임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대상: 35세 이하 남녀 젊은이 / 회비 없음
주제: 사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 강사: 이수산나 수녀
때, 곳: 12월 2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문의: 02)727-2031 박스테파니아 수녀

민족화해위원회

1) 149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11월 25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돋움당': 평양교구 순천 본당
2) 후원회 미사 / 문의: 02)727-2415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11월 28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제106차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1월 27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교회의 우선적 선택 /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지향: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을 위하여 / 주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문의: 02)727-2235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염미숙 개인전: 1전시실
김순겸 신부 10주기 추모전·서순환 화백 유작전: 2전시실
여서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 28일(금)~12월 7일(주일)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

1) 생명을 위한 월례 미사 / 문의: 02)727-2351
때, 곳: 12월 1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2) 어서와, 어른은 처음이지? 이른 어른이 '사랑학 개론'
대상: 사랑이 알고싶은 19세(고3)~24세 / 문의: 02)727-2353
때, 곳: 12월 27일(토) 10시~18시30분, 생명위원회 5층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교육

주제: 존중으로 다가가는 우리 아이 성교육
강사: 서혜린(송의여자대학교)
때, 곳: 12월 12일(금) 오전 9시50분~오후 1시, 교구청 본관 501호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 동시 진행
신청: 11월 17일(월) 10시~12월 4일(목) 4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문의(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20단 목주기도와 토요 성모신심 미사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성모 신심
때, 곳: 매주(토)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2(명동)
문의: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6 스페인 산티아고 도보순례 피정	9월 3일~17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산티아고 화요일피정	매주(화) / 안국역 - 외룡공원 - 북악팔각정 - 창의문 - 경복궁역(10km)

주교좌 명동대성당 2025년 대림특강

때, 곳: 12월 1일~15일 매주(월) 오후 7시~8시, 명동대성당 대성전(3주) / 문의: 02)774-1784

12월 1일(월)	서울대교구 2026사목교서	정순택 대주교 (서울대교구장)
12월 8일(월)	성경 속 인물들의 영적 진교와 소통	김영선 수녀 (광주 가톨릭대 교수)
12월 15일(월)	"당신이 옳다" 정청과 공감의 힘	정혜신 박사 (경신대학교학과 전문의)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말씀·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12월 5일~7일, 2026년 2월 27일~3월 1일 / 회비 없음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문의: 010-6637-1366

9지구 성령기도회 낮 피정

문의: 010-8872-6147
 때: 매월 첫째주(목) 12월 4일 13시~16시
 곳: 천호동성당 마리아관 / 윤민재 신부(미사·안수)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때, 곳: 매주(금) 19시, 가톨릭회관 516호

2026년 '간 김에 순례' 프로그램

유럽 수도원 및 성지 순례(프랑스·독일·이탈리아)
 분도출판사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10-5577-3605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분도출판사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때, 곳: 매월 마지막주(토) 14시~(주일) 14시, 초정성령회관 /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1박2일(3식) 서틀버스 운행(조직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문의: 02)3276-7794
 때, 곳: 12월 26일(금)~2026년 1월 4일(주일)·1월 8일(목)~17일(토)·1월 23일(금)~2월 1일(주일), 예수마음 배움터 / 주최: 예수회 영신수련 동반자 양성센터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 19일~22일·2026년 1월 16일~19일·2월 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1월 25일 이상기 회장 12월 2일 김효임 수녀

피아골 성지순례

피아골 피정	2026년 3월 1일~2일, 5월 22일~23일, 7월 18일~19일
마산교구 성지순례	12월 9일~11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4월 11일~5월 1일
홍성남 신부	제주 3월 4일~7일, 이브스키 4월 6일~10일

가정선교회 12월 피정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3·7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12월 3일(수) / 김정진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12월 6일(토) / 김현우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2월 20일(토) / 김재덕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대림 피정

기다림과 나의 십자가 / 문의: 02)726-0700
 때: 12월 18일(목) 10시~17시 / www.jiscen.or.kr

녹번동 성령기도회 치유 무료 피정

내용: 말씀, 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010-2452-3359
 때, 곳: 12월 3일(수) 18시30분~20시30분, 녹번동성당 2층 소성전 / 강사: 한상우 신부(구속주회)

33일 봉헌 감사 피정

강사: 장성진 신부(강의·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때: 12월 1일(월) 10시~17시 / 점심 무료제공
 곳: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중동역 5분 거리) /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순교성지 새남터 대림 일일 피정

강사: 이영준 신부(복자수도회), 김재덕 신부(대전교구)
 때, 곳: 12월 6일(토) 10시~15시(순례 미사), 새남터성당 2층 대성전 / 문의: 070-8672-0327
 12월 4일(목)까지 사전 접수 / 회비: 1만원(중식 제공)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강사: 박현민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11월 28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 성령봉사회관 하차 / 울동, 찬양, 미사, 고해성사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2월 19일(금)~22일(월)·2026년 1월 16일(금)~19일(월)·2월 13일(금)~16일(월)·2월 20일(금)~23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분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6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12월 5일~7일·12월 13일~15일·12월 19일~21일, 한라산·자연순례 2026년 1월 10일~12일·1월 16일~18일·1월 22일~24일·1월 26일~28일·2월 1일~3일·2월 7일~9일·2월 21일~23일·2월 26일~28일·3월 1일~4일(추차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순례 피정 12월 6일~8일·12월 12일~14일·2026년 1월 9일~11일·1월 23일~25일·2월 6일~8일·2월 27일~3월 1일,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돋이) 12월 31일~1월 3일, 한라산 눈꽃 영실산행 1월 15일~18일·1월 30일~2월 1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
 2026년 피정 접수 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고상·성모상·묵주 만들기(가톨릭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

교육청 학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영어 ABC반, 영어기초반 / 문의: 02)727-2471

Z세대 디지털 중독 탈출

때, 곳: 11월 27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5-2호) / 문의: 010-3262-6823 김영한
 주최: 천주교스마트섬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곳: 12월 4일~2026년 2월 19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원어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헬라어)

때: 2026년 1월~12월 (수) 19시30분~21시30분
 방법: Zoom / 회비: 30만원씩 4회(총 12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문의: 010-6655-1165
 때, 곳: 12월 16일~30일 매주(화) 13시30분~16시 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6년 2월 20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or.kr)

교회사 안에서 영성

곳: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주최)
 계좌: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 문의: 010-6791-0071 (문자)

1차	12월 17일(수) 15시~18일(목) 13시	회비: 12만원
2차	2026년 1월 7일(수)~8일(목)	(접수 후 입금)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 8일~19일 / 전형일: 2026년 1월 9일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 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제27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cpbccamp.com)

미국 (3주)	2026년 1월 12일~2월 1일 / UCLA·UC버클레·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탐방
사이판 (4주)	2026년 1월 10일~2월 4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 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월 19일(수)~28일(금)
 전형일: 12월 13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집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삶의
전	영성·철학상담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공	가톨릭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사회복지학	실천적 대안 모색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영성강의·후원회 미사

때, 곳: 11월 28일(금) 14시~16시, 골롬반 선교센터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 문의: 02)929-2977

여정성서 40주년 기념 '요한복음' 특강

때, 곳: 12월 6일(토) 10시~16시, 여정성서교육관(전
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200미터) / 강사: 허규 신부
회비: 4만원(점심 제공) / 계좌: 우리은행 1005-
802-929281 (계)천주교교리파스수녀회
문의(접수): 02)525-7869, 010-4727-3446 (문자 접수 가능)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전기 2차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원서접수: 2026년 1월 5일~23일 17시까지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62학점
(수강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
법-88학점(수업료 50%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gsc.catholic.ac.kr)

2026년 서강대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4차 모집

접수: 11월 24일(월)~12월 12일(금) / 문의: 02)705-8678
전형일: 12월 13일(토) / 모집: 게임그래픽·웹툰만화
애니메이션, 게임AI·개발,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학점은행계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 가능
학사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
학 가능 / 홈페이지: https://sccc.sogang.ac.kr

모집

전교가르멜 수녀회 재속회원 모집

대상: 기도와 교회적 친교의 삶을 원하는 분
문의: 010-8271-1852, 010-4044-3383

성 김대건 성가단 하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만50세 미만)
때: 매주(수) 19시30분 / 문의: 010-2272-0180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봉사에 관심 있는 현재 초·중·고·대학생
방향: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리더십 / www.stvin.or.kr
내용: 연탄나눔, 생태체험, 공연, 병원, 해외봉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1월 26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12월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12월 18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11월 28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군중후원회 월례 미사·특강

특강: 박현찬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12월 1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상봉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곡개성지 내)

11월 영화 치유 미사(가톨릭영화인협회)

내용: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미사(사전 접수)
때: 11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회비 없음
곳: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웅기장학회 월례 미사

때, 곳: 11월 24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백종하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김재화 신부 / 문의: 02)727-2525 사무국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
서 가신 하느님의 중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 심리 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암환자·가족 무료 쉼터 이용 지원사업

대상: 암환자, 가족(보호자)
이용기간: 최대 4박5일(월~금) / 곳: 강화도 마텔쉼터
전액 무료 / 문의: 032)937-7530 마텔암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가톨릭여성연합회 11월 정기월례회

주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 문의: 02)778-7543
때: 11월 25일(화)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 미사·특강: 김연범 신부(사목국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홈페이지(yonaseort.com) 참조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문의: 041)934-7758

2025년 성탄 평화마켓(가톨릭 플리마켓)

청년 작가들이 정성껏 만든 핸드메이드 성물과 다양
한 가톨릭 소품을 만날 수 있는 평화마켓에 여러분
을 초대합니다 마켓 수익금의 일부는 청소년들을 위
한 기부금으로 사용됩니다 / 문의: 02)338-7832
때, 곳: 12월 6일(토) 12시~18시, 청년문화공간
JU(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1층 카페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독거기회 통일기원 미사

때: 11월 25일(화) 14시 / 문의: 010-8126-5676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 주례: 신희준 신부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미래놀이 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성인, 심리검사
강좌	마음서림 캘리그라피 11월 25일~12월 23일 (화) 10시~11시30분, 미술심리상담사 2급 12월 4일~2026년 1월 15일 (목) 10시~14시(5주간 30 시간), 명상·놀이치유(여건강 심리 활동) 12월 9 일~2월 10일 매주(화) 14시~15시30분(1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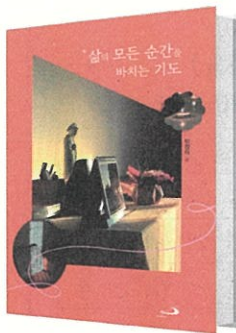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일반행정·조리원 모집

홈페이지(http://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
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수시	수녀원(평창동)	010-8852-9817 황 수산나 수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수시	수녀원(성북동)	010-4627-0295 손 카타리나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삶의 모든 순간을 바치는 기도

박정미 지음
성바오로 | 96쪽 | 7천8백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이 책에는 일하는 엄마로서 삶의 매 순간을 기도하며 살아가려는 저자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 있다. 저자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가슴 가득 벅차오르는 감사의 순간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과 함께하고자 한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일상의 기도 등 각 주제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바칠 수 있는 기도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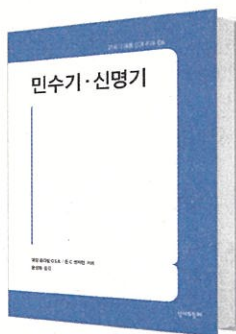


신간

마태오, '두려워하지 마라'의 복음

이민영 지음
성서와함께 | 216쪽 | 1만9천원
문의: 02)822-0125

마태오 복음서를 중심으로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신앙의 시선으로 성찰하는 책이다.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반복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님의 정체를 새롭게 해석한다. 두려움은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되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06
민수기·신명기

데일 몬더빌 O.S.B.·돈 C. 벤저민 지음
성서와함께 | 220쪽 | 2만1천원
문의: 02)822-0125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민수기·신명기》는 가톨릭교회의 성경 해석 전통을 존중하며, 현대 성서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주해서다. 모세오경의 신학적 맥락 속에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핵심 주제를 깊이 탐구하며, '광야에서의 신앙'과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잇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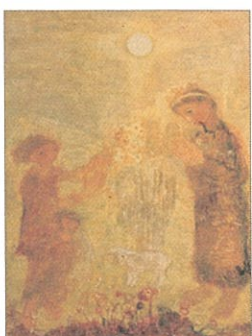


공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크리스마스 특별초청공연

입장권: R석 12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C석 5만원(예술의전당)/R석 11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38-1492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10% 할인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으로 비오 12세 교황님께 '평화의 사도'라는 별칭을 받은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이 12월 20일(토) 19시30분, 성남아트센터 / 12월 21일(주일) 17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음성으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함께 나누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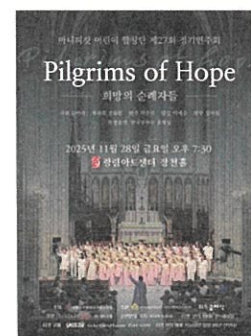


전시

빛의 기도:
화가 송경,
신앙과 예술의 여정

때, 곳: 11월 25일(화)~2026년 1월 31일(토), 스페이스 성북(성북동 기도의 집 1층) / 월·화·공휴일 휴관
문의: 02)766-3004 / 무료 전시

신앙과 예술이 하나 된 삶을 산 여류화가 송경 클라라(1936~2022)의 유작전은 '빛의 기도'를 주제로 한 그녀의 순수하고 성스러운 예술세계를 조명한다. 평생, 작품 제작에 전념했던 작가의 신앙적 내면과 예술적 탐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 보여준다. 스페이스 성북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신앙이 빛은 빛의 예술로 우리를 초대한다.



음악회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
제27회 정기연주회
Pilgrims of Hope
희망의 순례자들

때, 곳: 11월 28일(금) 19시30분,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 문의: 070-4324-6360
입장권: 전석 1만원(yes24 티켓 예매)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희망을 전하는 마니피캣 어린이 합창단의 이번 연주회에서는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반주 성음악 무대를 비롯해, 아름다운 한국 가곡과 정겨운 민요 등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한국 무용수의 특별 공연과 협연이 함께하며,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전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따뜻한 시간이 찾아온다.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김 현 (안토니오)

주임신부 : 최장민 (도미니코)

부주임신부 : 백종원 (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 (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5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오후 6시 (청년)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미사시간 조정

- 12월(대림 제1주간)부터 미사시간이 조정됩니다.
- 화요일 : 오전 6시미사 신설
- 수요일 : 오후 7시미사 신설
- 토요일 : 오전 6시미사를 오전 10시미사로 변경

● 연령회 미사

- 일시 : 12월 2일(화) 오전 10시
- ※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시간

- 일시 : 12월 4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 일시 : 12월 6일(토)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12월 16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11월 28일(금) 오전 10시 출발
- ※ 병자영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구역장님 또는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울드레아

- 일시 : 11월 25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한푸름 청년성가대 정기연주회

- 일시 : 12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성전
- ※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물방 봉사자 모집

- 봉사시간 : 토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 구유 제작합니다.

- 일정 : 11월 9일(주일) ~ 11월 29일(토)
- 구유축복식 : 11월 30일(주일) 교중미사 후
- ※ M.E. 가족과 남성분과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26년도 달력 배부

- 배부 장소 : 교육관 1층 로비
- 배부 수량/방법 : 세대별 1부씩 / 자율 수령

● 수어 단어장 배부

- 기초 수어단어 30개 수록한 단어장을 배부합니다.
- 배부 장소 : 교육관 1층 로비
- 배부 방법 : 자율 수령

● 2026년 각 단체 예산신청서 제출

- 기간 : 11월 30일(주일)까지
- 신청서 :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양식명(엑셀파일) : 2026년 단체예산신청서 양식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사무실에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jjmalee@seoul.catholic.kr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 제출

- 2025년부터 납입하신 교무금 등은 종이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기부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에따라 2022년 12월 이전에 간소화 동의를 하신 분들은 금년내에 사무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제출하실 경우 발급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11. 16)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5	772 (38.1%)	727 (36.1%)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이옥연 데레사 상가 오만원

● 감사헌금 (11월 10일 ~ 11월 16일)

김영숙	오만원	김나영	일십만원
한주연	오만원	박명숙	오만원
이명숙	일십만원	임은진	일십만원
조세민	일십만원	김영숙	일십만원
원정순	삼만원	김희진	오만원
이인선	일십만원	박희정	삼십만원
양경남	일십만원	이지만	일십만원
익명	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33주일)

교무금	11,145,000원
주일헌금	5,826,260원

입당	73	봉헌	220,212,215	성체	498,499,198	파견	75
----	----	----	-------------	----	-------------	----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